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4408

2007년 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논문

『소학(小學)』의 도덕교육이론에 대한 고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나 회 정

『소학(小學)』의 도덕교육이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heory of Moral Education in the 『Sohak』

200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나 회 정

『소학(小學)』의 도덕교육이론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정 진 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도덕윤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나 회 정

나회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성 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재 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진 일 인

200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

Ⅰ. 서론 ····· 1

Ⅱ.『소학』의 내용 분석 ····· 5
1. 입교편 ····· 5
2. 명륜편 ····· 7
3. 경신편 ····· 10
4. 계고편 ····· 14
5. 가언편과 선행편 ····· 16

Ⅲ. 도덕교육이론과『소학』 ····· 17
1. 내용구성 ····· 17
2. 교육 목표 ····· 20
3. 교수학습 방법 ····· 26
4. 교수학습 원리 ····· 31
1) 도덕성 발달 촉진의 원리 ····· 31
2) 형식보다 내용중심의 원리 ····· 34

Ⅳ.『소학』의 도덕교육 활용 가능성 ····· 37
1.『소학』을 활용한 도덕교육 ····· 37
2.『소학』의 도덕교육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 ····· 44

Ⅴ. 결론 ····· 50

◆ 참고 문헌 ◆ ····· 53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Moral Education in the 『Sohak』

Hoi-jung Na
Advisor: Jin-il Jeong Ph.M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moral education theory from 『So-hak』 was investigated for current meaning, and utilization of this principle to modern moral education was evaluated.

『Sohak』 was published by Yu Cheong Ji, who was colleague to Ju-hui. By the will of Ju-hui, 『Sohak』 contains specific ethical virtues from various Books. On late Goryeo dynasty, it was thought to be introduced with Shushigaku to Korean Peninsula. It was used as not only government philosophy but also education. Goal of education is the restoration of natural intelligence as the position of the ethical doctrine of innate goodness. In addition, this idea should be used as index of life. 『Sohak』 emphasizes on education of true human being through the practicing moral rules to govern the Five Human Relations. Moreover, the one should reflect oneself and conduct this principle to action.

『Sohak』 consusts of the introduction and two parts of main body. There are Sohaksoeje(小學書題) and Sohakjesa(小學題辭) in the introduction. The main body is divided into inner and outer sections. The inner section is classified into ipkyo (入敎), myungryup(明倫), kyungsin(敬信), kyego(稽考), The outer section is classified into kaeon(嘉言), soenhang(善行). On ipkyo section, what the man and woman should learn by own age is described. myungryup writes about principles of daily life, such as cleaning and washing, response, attitude. kyungsin is

specified the method of circumstance by refined rigorism. kaeon and soenhang contains teachings and modeled conduct from previous times.

Education method in 『Sohak』 reasonably suggests its method by the age. On action and practice, basic manners will teach the fundamental as human being, and are trained by conducting them. The other methods are setting an example.

Modern meaning of 『Sohak』 can be applied as follows: ipkyo will be the alternative way to teach about not only anti-humanity crime but also misconduct of teenagers, collapsing of classroom. This might solved the education crisis for today. On myungryup, specific moral rules to govern the Five Human Relation (f master and servant, of father and son, of husband and wife, of brothers, of friends are realized to truthful piety, country loving, respect and order, desirable friendship. This is the essence of teaching, and we should keep and improve. kyungsin can teach us to learn ill-manner of teenager, self-centeredness, no patience, indiscrete consumption.

The comparisons and analyses with modern moral education with 『Sohak』 are following.

First, 『Sohak』 emphasizes on ideal human being, who is met ethical philosophy. Educational human figure of 『Sohak』 can be correlated with 'ethically educated person' of Durkheim in modern moral education theory, and man of honor actively conduct to realize the true nature of humanity, justice, intellect. In addition, this person should have a will to practice with balanced action, emotion, and rationale. Second, 『Sohak』 emphasizes the content-based lecturing and ethical socialism than formality. Durkheim insists that ‘rationality can be important element for moral action, but is not indispensable one. Children should be socialized ethically to know why they should do something.' Third, 『Sohak』 emphasizes the role of teach as the responsible person for socialization. This content can be supported with the relation of cardinal virtues. Fourth, aim, content, and method for moral education in 『Sohak』 suggests many issues for systematical moral education for today. Fifth, 『Sohak』 emphasizes on habitation with acknowledgement, and this can help to improve ethics in children.

『Sohak』 suggest clear system and principle in education of children. On

『Sohak』, it can be used as basic habitation. However, the Book contains many teachings to even adult, and needs to be learned and practiced sustainingly with endeavors and patience.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start in Middle school age, when the self identity is form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mind and body.

As the utilization of 『Sohak』 in current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 middle school, the follow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re suggested. First, teacher should select the content from 7th composition of ethics textbook with the idea from 『Sohak』. Second, as special class (research and discussion class), student talks about the related virtue and value from 『Sohak』, and is made to find the modern meaning through criticism. Third, via special activity room, such as manner room, 『Sohak』 is taught systematically. Fourth, it is not directly applied to moral education, but used as guidance and discretion activity.

Teaching method on moral education with utilizing 『Sohak』 can be consisted of persuasion, correctional education, researching activity, practice and experience, etc. Through these various methods, 『Sohak』 can be the perfect harmonization of tradition and modern.

However, the application of 『Sohak』 to moral education in middle school should be dealt in prudence with considering age, subject, difficulty, relativity with classroom learning, etc. More researches are needed to be conducted for conformity. In addition, the diversification of application cases with 『Sohak』 teaching will help to improve and solve the virtues and problems.

Ⅰ. 서 론

우리 교육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쟁중심적·지식편향적 교육은 여전히 우리 교육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문화는 최근에 제기된 다양한 교육개혁안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종합생활기록부'는 이러한 평가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기재하여 대학입학의 전형자료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혁안에서는 봉사활동과 같은 실천적 활동을 통해 함양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도덕성을 지적인 판단능력을 중심으로 사고하였던 주지주의적 도덕교육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인성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은 입안자들이 기대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양한 소질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 지식 편향적 성격이 실제로 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동장치를 잃어버린 조기 지식교육이나 진도 앞지르기 열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까닭은 교육을 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도구주의적 교육관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쟁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교육은 경쟁의식을 내면화하는 통로이거나,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교육문화에서는 봉사, 대화와 같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학습자들의 도덕적 수준은 학교생활의 분위기,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관, 사회 성원들의 행위 양식과 같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 수준과 깊이 관련되어 있

다.

도덕성은 옳은 것을 선택하거나 규범을 준수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뜻한다. 삶의 근본적인 태도로서의 도덕성은 올바른 가치를 삶의 과정에서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바람직한 가치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도덕규범을 삶의 모든 과정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인 판단능력을 비롯한 특정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수단적 의미의 봉사활동을 강조하는 식으로는 도덕성을 기를 수 없다.

인간의 도덕성을 도야시키기 위한 교육적 안목을 동양의 전통 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 동양적 관점에서는 모든 교육은 원래부터 도덕교육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는 유학은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즉 인간됨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적인 교육목적으로 여긴다. 유학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도덕적 심성을 마련하는 일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교육적 원리가 『小學』에 제시되어 있다.

『소학』은 주자가 그의 문인 유청지와 함께 편집한 책으로서, 『소학』에는 초학자들을 위한 소학교육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유학자들은 이치 탐구의 지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공부에 앞서서 반드시 『소학』을 익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소학의 언해본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반포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익혀야 할 기초적인 책으로 인식되었다.

『소학』은 오륜으로 대표되는 인간관계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법,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학』은 현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간과해버릴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매우 일상적인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도덕성의 함양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덕교육교과가 가지는 중요성이 바로 이러한 도덕성의 함양에 기초하고 있기에 예나 지금이나 도덕성을 길러가려는 방향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학』의 도덕교육이론을 탐구함으로써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도덕교육에서 활용 가능한지 그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학』에 관하여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체적인 연구 경향을 고찰하면 크게 『소학』의 내용을 유학의 사상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힌 논문[1], 『소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정을 분석하고 『소학』의 내용을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특성과 관련지은 논문[2], 주자학의 공부론의 체계 속에서 『소학』의 위상을 밝히고 내용을 분석한 논문[3], 『소학』을 현대 아동교육적 논의와 관련하여 분석한 논문[4]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초기의 『소학』연구는 조선사회에 전파·정착되는 과정을 논의하거나, 『소학』을 통해 유학의 사상을 분석하거나, 『소학』의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소학』을 소개하는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리학의 전 체계 속에서, 혹은 조선시대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다루거나 아동 교육적 관점에서 『소학』의 내용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교육 단계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학』에서 보이는 도덕교육적 측면에서의 교육목표와

---

1) 김기현, 「儒家의 倫理構造 分析 : 소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문고, 제 19호, 고대민족문화연구회,1986.
이명기, 「小學敎育內容的 分析」 공주사대 논문집, 제 23호, 1985.

2) 이수건, 「朝鮮時代의 小學敎育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논문집, 제2호, 1969.
한관일, 「朝鮮前期의 小學敎育硏究」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준석, 「朝鮮時代의 社會思想, 小學의 分析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3) 신동은, 「주자의 소학교육관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최광만, 「論語의 子夏之門人小子章에 비추어본 朱子의 小學敎育論」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998).
황금중, 「儒學敎育에서의 小學의 位相」 교육사학연구 제 9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999).

4) 이용주, 「소학을 통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신순남, 「소학의 도덕 교육론-유치원 교육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교육방법을 추출하여 도덕교육이론에 접목하고『소학』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므로『소학』을 분석하고 현대도덕교육이론과 비교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Ⅱ. 『소학』의 내용 분석

1. 입교편(立敎篇)

입교편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서 중용의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다'를 인용하여 교육의 종지를 밝히고, 다음으로 입교편을 설정한 취지를 밝혔는데, 곧 스승과 제자에게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편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입교편에서는 교육의 필요성, 목적, 내용, 방법,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5)]

입교편 처음에 중용의 말을 인용하여 교육의 목표를 말하고 있다. 자사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명령해 준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품절(品節)한 것을 교(敎)라 한다. 하늘의 명을 본받고 성인의 법을 따라 이 책을 지어 스승 된 자로 하여금 가르칠 바를 알게 하며 제자로 하여금 배울 바를 알게 하노라."[6)]라 하였다. 즉 인간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이러한 인간존재의 이상을 실현하는 행위로써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시(詩)·서(書)·예(禮)·악(樂)과 삼물(三物)이 언급되고 있다. 삼물(三物)은 육덕(六德), 육행(六行), 육예(六藝)[7)]를 말하는 것으로

---

5) 입교편의 내용 분석표 (황영란, 1998)

내 용	관 련 장
교육의 필요성	5
교육의 목적	6, 13
교육의 내용, 방법	1,2,3,7,8,9,10,11,12
교육제도	4

6) 『소학』, 「입교」, 1장; 子思子曰,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則天明, 遵聖法, 述此篇. 俾爲師者, 知所以敎. 而弟子知所以學.

7) 『소학』, 「입교」, 7장; 六德은 智(옳고 그름을 구별)· 仁(사욕이 없음)· 聖(통하지않음이 없음)· 義(결단과 제재함이 있음)· 忠(자신의 마음을 다함)· 和(어긋나는 바가 없음)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六行은 孝(부모를 섬김)· 友(형제와의 우애)· 睦(친족과의 화목)· 婣(인척과의 화목)· 任(친구사이의 믿음)· 恤(우환과 가난을 구제함)일상생활에서 몸소 실천하여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고, 六藝는 禮(사회생활과)· 樂(음악과)· 射(체육과)· 御(기술과)· 書(국어과)· 數(수학과)로 모든 사람들이

육덕은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이고,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이며,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출생전의 교육인 태교와 출생 후의 교육을 연령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태교에 관해서는 열녀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임부가 잘잘 때, 앉을 때, 설 때, 식사할 때, 기타보고 들을 때 지켜야 할 것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출생 후의 교육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아이가 태어나 나이가 들면 발달 단계에 알맞은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가르쳤으며, 남녀를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달리 하였다[8]. 특히 남녀가 7세가 되면 한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함께 먹지 못하도록 가르쳤다.

교육제도는 중국 고대의 교육기관으로 숙(熟)·상(庠)·서(序)·학(學)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입교편은 교육의 장을 가정, 학교, 그리고 군주의 통치의 장과 연계시키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의 대상은 아동기 이전까지로 인식하여 태교의 대상에서 간접적으로 새 생명의 출발점까지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제 간의 본분을 거론하여 교육주체로서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만남에 있어서 상호간의 직분을 중시하였다. 현대교육이 학교위주의 교육인 반면, 『소학』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 가정교육의 중요성, 아동기 이전의 태아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중시하고 있다.

익혀야 할 것들이다.

8) 『소학』, 「입교」, 2장; 內則曰,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使爲子師. 子能食食敎以右手. 能言男唯女俞. 男鞶革, 女鞶絲. 六年敎之數與方名. 七年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出入門戶及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讓. 九年敎之數日. 十年出就外傅, 居宿於外, 學書計, 衣不帛襦袴, 禮帥初, 朝夕學幼儀, 請肄簡諒. 十有三年學樂誦詩, 舞勺, 成童舞象, 學射御. 二十而冠, 始學禮, 可以衣裘帛, 舞大夏, 惇行孝悌, 博學不敎, 內而不出. 三十而有室, 始理男事, 博學無方, 孫友視志. 四十始仕, 方物出謀發慮, 道合則服從, 不可則去. 五十命爲大夫, 服官政, 七十致事. 女子十年不出, 姆敎婉娩聽從, 執麻枲, 治絲繭. 織紝組紃,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籩豆葅醢, 禮相助奠. 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 有故二十三而嫁. 聘則爲妻, 奔則爲妾.

2. 명륜편(明倫篇)

명륜편은 인륜을 밝히는 단원으로서, 부자지친(父子之親), 군신지의(君臣之義), 부부지별(夫婦之別), 장유지서(장유지서), 붕우지교(朋友之交)의 오륜(五輪)과 통론(通論)으로 짜여 있는데, 모두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9] 서두에

9) 명륜편의 내용 분석표 (황영란, 1998)

내 용			관 련 장
부자지친(父子之親)	부모섬기는요령	근면히 모심	3, 4, 5, 6, 14, 36
		부모의 복종	11, 12, 13, 15, 17, 19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히 함	8, 18, 27
		뜻을 이음	16, 17, 26
		부모에 간함	21, 22, 23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	1
		근면성	2
		부모목전의 행실	7
		부모의 재산관리권	10
	병든 노인을 걱정하고 부모의 상에 슬퍼함		24, 25, 28
	불효 및 불효시의 형벌		35, 37, 39
	자기의 신체보호		9, 34
	가족의 화목		20
	조상숭배		29, 30, 31, 32, 33
군신지의(君臣之義)	신하의 군주를 모심		1, 2, 3, 4, 9, 10, 11, 12
	군의 하사에 대한 예절		5, 6, 7, 8
	신하의 충절		14, 16, 20
	직책에 대한 소임		15, 19
	진언		13, 18
	군의 신하에 대한 예절		14
	군의 소인에 대한 경계		17
부부지별(夫婦之別)	관혼례		1, 2, 4, 5
	부부례		3, 6, 7
	부의 복종		8
	택 우		9
장유지서(長幼之序)	경 형		1
	경 장		2-5, 7, 8, 14-16, 18-20
	경군자		11, 12, 13, 17
	스승을 모심		6, 9, 10
붕우지교(朋友之交)	택 우		1, 5, 6
	교우법		2, 3, 4, 7, 8
	접빈(절차, 요령)		9, 10, 11
통론	군자의 효, 군에의 충성, 경형		1
	진언(군과 부모, 벗에게)		2

서 고대의 교육은 인륜을 밝히는데 있다는 맹자의 말을 들어서, 본편의 저술 경위를 말하고 있다. 명륜에서 임금은 명령하고 신하는 공손하고 아버지는 자애하고 자식은 효도하고 형은 사랑하고 도생은 공경하고 남편은 화하고 아내는 유순하며 시어머니는 사랑하고 며느리는 순종함은 정명의 대표적인 예가 되며, 이것의 실천덕목으로 친・의・별・서・신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 덕목으로서 오륜에 관한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부자지친에서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를 다루고 있는데, 부모 생존 시의 경우와 사후의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생존 시의 부모 섬기는 요령에는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일, 부모에게 복종하는 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일, 부모의 질병과 노쇠를 걱정하는 일, 불효시의 형벌 등이 언급되어 있다. 즉 신체보전(건강), 부모의 뜻 계승, 의복 단정, 직무 충실, 순종, 친족 간의 화목, 부모의 잘못 간언,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부모의 잠자리를 살펴드리는 것 등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기술하고 있다.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기쁘게 해드리는 정신적 성격의 양지(養志)와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육체적, 생리적 성격의 양구체(養口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봉양인 양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자지친에서는 오효(五孝)[10]와 오불효(五不孝)[11], 오비효(五非孝)[12]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참된 효의 의미와 방법을 자각토록 하고 있다.

	부, 군, 사 섬기는 도리	3, 4
	군신, 부자, 고부간의 도리	5
	효, 경형, 경장의 근면성	6
	방심에 대한 경계	7
	섬김에 있어 좋지 못한 세가지	8
	윤리도덕(의,친, 별)의 강조	9

10) 『소학』, 「명륜」, 36장;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11) 『소학』, 「명륜」, 37장; 孟子曰, 世俗所謂不孝者, 五. 惰其四支,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 好飮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12) 『소학』, 「명륜」, 38장; 曾子曰, 身也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 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莅官不敬, 非孝也. 朋友不信, 非孝也. 戰陳無勇, 非孝也. 五者不遂, 灾及其親. 敢不敬乎.

각 장의 내용은『예기』,『논어』 등의 경전에서 성현들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는데, 효도의 방법을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1장은 혼정신성(昏定晨省)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3장에는 부모의 기거를 편안하게 해 드릴 것과 부모의 물건을 소중히 다룰 것을 상황 설명을 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군신지의에서는 관리로서 애국하는 방법과 군왕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군왕을 모시는 예절, 죽음으로써 충절을 다하는 것, 군왕이 하사하는 것을 받는 예절, 군왕의 실정을 간하여 시정을 진언하는 일, 군왕이 등지 않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벼슬길에서 물러나는 것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군왕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경우에는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소인에 대해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다.

부부지별에서는 관례, 혼례,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예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례 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조자를 맞이하여 우리 가묘의 일을 계승하되, 힘써 선도하기를 경으로써 선비를 잇게 할 것이니, 너는 떳떳함을 두어라”하고 당부하는 말과 친정부모가 딸을 시집보낼 때에는 “경계하고 공경하여 이르나 늦으나 시부모님의 명을 어기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삼불거(三不去) 등이 제시되어 있다.

장유지서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경장의 도리가 제일 강조되고, 그 다음에 성인·군자를 존경하고 본받는 일, 제자가 스승을 잘 모시며 가르침을 받는 사제관계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버지의 친우 앞에서 공손히 해야 하며, 어른의 뒤에서 공손히 따라가야 하며, 나이 드신 분을 아버지나 형으로 섬겨야 하며, 어른 앞에서는 공손한 용모를 갖추어야 하며, 어른 앞에서는 예절 바르게 청소해야 하며, 어른의 짐을 들어다 드려야 한다는 연장자에 대한 예의와 선생님을 부모와 같이 공경해야 하는 일, 선생님의 물건을 소중히 하며 배우는 바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선생님에 대한 예절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붕우지교에서는 친우 간에는 정성을 다하여 근면하고, 선을 하도록 책하며, 유익한 벗, 해로운 벗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택우(擇友)의 중요성과 손님을 맞는 접빈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다.

통론에서는 오륜의 각 항목에 효(孝)·충(忠)·경장(敬長) 등의 도리가 혼합되어 있다. 이를테면 1장에서는 군자의 효·충·경장을 들고 있으며, 2장에서는 군(君)·부(父)·붕우(朋友)에게 잘못을 간하는 신하·아들·벗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순자의 세 가지 상서롭지 못한 것(三不祥)[13]을 들고 있다. 9장은 명륜편의 마지막 장으로서, 군신의 의리, 부자의 친애, 부부의 분별과 같은 도리는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할 중요한 윤리임을 강조하면서 명륜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3. 경신편(敬身篇)

경신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임을 밝힌 편으로 모두 4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나 자신의 몸을 공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몸은 부모의 가지이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서두로 심술지요(心術之要), 위의지칙(威儀之則), 의복지제(衣服之制), 음식지절(飮食之節)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14]

---

13) 삼불상이란 나이 어린 자가 어른을 섬기지 않는 것, 신분이 미천한 자가 존귀한 이를 섬기지 않는 것, 불초한 자가 현명한 이를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14) 경신편의 내용 분석표 (황영란, 1998)

내 용		관 련 장
심술지요(心術之要)	공경하는 마음	1, 2, 4
	삼가 조심함	3, 5, 6, 7, 9
	군자의 태도	8, 10
	욕심을 적게 가짐	1, 2, 11
	숭신(경천)	12
위의지칙(威儀之則)	예의태도	1, 8, 13, 14, 17, 18, 20, 21
	삼가 조심함	2, 4, 5, 19

『소학』의 경신 편 내용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하여 물리를 통하게 하는 인격 수양의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원래 경신(敬身)의 의미는 공자가 『예기』 애공문에서 “군자는 자기의 몸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긴다”[15]고 하는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의 경의 의미는 단순히 공경(恭敬)의 뜻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소학전편의 경의 개념은 단순히 공경의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경이란 공부하는 방법인 동시에 학습자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수양론에 의하면 경은 ‘함양’(존양)과 ‘성찰’이라는 독특한 실천 방법을 통해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수양 방법이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대개 방종한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방심하면 태타(怠惰), 사욕(私慾), 사의(私意) 등이 제멋대로 흘러들어 천리(天理)를 깨달을 수 없고, 마음속이 혼탁하고 막혀서, 마침내 사사로운 욕망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주자는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처방으로 경에 의한 수양공부를 강조하고 있다.[16] 따라서 경신편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양과 덕을 닦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마음가짐의 요령인 심술지요에서는 편파적으로 기울기 쉬운 감정을 살펴서 중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성하고 살펴가는 수신의 의를 통해 마음을 편벽되게 갖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모든 일을 사

	방문	3, 7
	언어요령 및 주의	6, 9, 10, 11
	표정	4, 6, 8, 13, 16
	정리정돈(좌석)	12
	집안에서 모양을 꾸미지 않음	15
의복지제(衣服之制)	관,상례시의 의복	1, 2, 3, 4, 5, 6
	의복의 검소한 착용	7
음식지절(飮食之節)	식사의 방법	1, 5
	식사시 군자대접	2
	식사위생	3
	음식을 논함	4, 6

15) 『소학』, 「경신」, 서문; 孔子曰, 君子無不敬也, 敬身爲大. 身也者, 親之枝也. 敢不敬與. 不能敬其身, 是傷其親. 傷其親, 是傷其本. 傷其本, 枝從而亡.

16) 송석준, 「유교의 사회관」, 『현대인의 유교 읽기』 (아세아 문화사, 1999), p.268.

려 깊게 생각하며(九思)[17], 공경하고 의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며, 예가 아닌 행동을 하지 않고 예를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순리를 따르며,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항상 공손하고 경건하며 성실한 자세로 수신천언(修身踐言)할 것을 제시하여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는 일에 근본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1장에서는 '공경이 태만함을 이기는 사람은 길하고, 태만함이 공경심을 이기는 사람은 멸하며, 의리가 욕심을 이기는 사람은 순조롭고, 욕심이 의리를 이기는 사람은 흉하다'[18]는 「단서(丹書)」의 말을 인용하여 매사에 공경하고 의리를 앞세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2장에서는 공경하는 것이 예의 근본이니 내 심신을 비롯해 남을 공경하고, 모든 사물을 공경지심(恭敬之心)으로 대처하면 모든 일이 절로 사리에 맞는다고 하여, 오만을 경계하고 사욕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장에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19]는 공자의 사물잠(四勿箴)을 제시하고 있다. 12장에서는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20]는 관중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같은 경신편의 내용들은 신독(愼獨)을 통해 존심양성(存心養性), 거경궁리(居敬窮理)하는 수양(修養)의 태도를 밝힌 것이다.

용모간수와 몸가짐의 법도인 위의지칙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법(九容)[21], 남의 집을 방문하는 예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바른 자세, 남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의 예절, 집안에 거처할 때

---

17) 『소학』, 「경신」, 7장;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雖, 見得思義. 구사란 "보는 데서는 밝게 보기를 생각하며,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며, 용모에는 공손 하려 생각하며, 일을 하는 데서는 성실 하려 생각하며, 의심날 적에 물으려 생각하며, 분할 때는 환난 당할 것을 생각하며,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라 하여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할 9가지를 말한다.

18) 『소학』,「경신」, 1장 ; 丹書曰, 敬勝怠者, 吉. 怠勝敬者, 滅. 義勝欲者, 從. 欲勝義者, 凶.

19) 『소학』,「경신」, 3장; 孔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20) 『소학』,「경신」, 12장; 管敬仲曰, 畏威如疾, 民之上也. 從懷如流, 民之下也. 見懷思威, 民之中也. 右, 明　心術之要.

21) 『소학』, 「경신」, 16장;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용모와 몸가짐에 대한 정제엄숙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용은 경의 수양의 방법으로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발모양은 무겁게 하며, 손 모양은 공손하게 하며, 눈 모양은 단정하게 하며, 입모양은 그치며, 소리 모양은 고요하게 하며, 머리 모양은 곧게 하며, 숨 쉬는 모양은 엄숙하게 하며,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하며, 얼굴 모양은 장엄하게 해야 한다.

이는 모두 경의 조목인데, 이것은 모두 근본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밖을 단속하여 안을 정제하는 유가의 기본적인 수양방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 구조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의복지제의 내용은 대부분 예에 맞는 의복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복의 예는 당시까지 굳어져 온 복장의 종류와 색깔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테면 1장에서는 관혼시의 관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부모의 생존시에는 관과 의복에 희선을 두지 말도록 가르치며, 5장은 문상시의 의복이, 6장은 아동의 의복에 대해서 다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는 도에 뜻을 둔 선비는 악의(惡衣)·악식(惡食)에 구애받지 않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음식지절에서는 식사의 방법, 위생, 식사 시의 예절 등에 관하여 올바른 도와 법도에 맞게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식탐에 빠져서는 안 되며, 남과 식사할 때는 올바른 식사 예절을 지키며, 술을 마실 때는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밥을 크게 뜨지 말며, 길게 흘려 마시지 말며, 조금씩 먹어 빨리 삼키며, 자주 씹어, 입 놀리는 모양을 내지 말아야 한다.”[22]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식사 자리에 나가고, 음식을 먹을 때의 여러 행위에 있어서 법도에 맞게 하는 예, 술 마실 때의 태도 등은 어릴 적 습관 형성과 관계 깊은 것으로 예전의 밥상머리 교육 차원에서 다시 교육할

22) 『소학』, 「경신」, 42장; 少儀曰, 侍食於君子, 則先飯而後已. 毋放飯, 毋流歠, 小飯而亟之, 數噦, 毋爲口容.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신편에서는 일상의 생활습관에 대한 실천규범이 언어, 표정, 의복, 식사 등으로 나누어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내용은 주로 『예기』나 『논어』 등에서 인용하였다. 내용의 배열은 원리적인 지침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앞 부분에 제시하고, 그 뒤에는 여러 자료와 성현의 말씀을 들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 계고편(稽古篇)

계고편은 요순시대와 하·상·주 삼대의 성현들이 행한 자취를 고찰하여 앞에 제시된 입교·명륜·경신편의 말을 증명하고 있다. 모두 4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서는 요순을 본받아야 한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옛 성현들의 선한 행실을 수록하여 사람들이 읽고 분발하게 하기 위하여 본편을 설정하였다고 그 서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특히 명륜 편에 대한 내용이 폭넓게 강조되어 있다.[23]

23) 계고편의 내용 분석표 (황영란, 1998)

내 용			관 련 장
입 교	교육의 필요성		1
	교육방법		1, 2, 3, 4
명 륜	부자지친	효의 공효	1, 2, 13
		효의 지성	3, 9
		근신	4, 7
		병든노인을 걱정하고 부모의 상에 슬퍼함	5, 12, 14-16
		계지(繼志)	6
		봉양	8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편히 함	10
		자기의 신체보호	11, 17
	군신지의	충절	18-22
	부부지별	부부례	23
		남녀관계	24
		사부(事夫)	25, 26
	장유지서	형제애	27, 28
	붕우지교	교우법	30, 31
	통론	겸 양	29

입교에서는 교육방법에 대한 실증적 예를 4장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1장은 문왕의 어머니 태임의 태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2장은 맹모의 삼천지교, 3장과 4장은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시·예 학습의 중요성을 지적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명륜은 부자지친, 군신지의, 장유지서, 붕우지교, 통론으로 그 내용이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 부자지친에 관한 것이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다. 부자지친에 관하여는 순, 문왕, 무왕, 주공, 증자와 증원, 민자건, 노래자, 낙정자춘, 백유, 소련과 대련, 고자고, 안정의 효행이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군신지의에 관해서는 기자·비간·미자, 백이숙제, 연백왕, 예양, 왕손가등의 충절이 예로 제시되어 있다. 부부지별에 관하여는 극결부부의 공경, 계강자와 종조숙모 사이의 남녀분별, 공강의 수절고사등이 제시되어 있다. 장유지서에서는 증자와 안평중의 교우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경신은 심술지요, 위의지칙, 의복지제, 음식지절로 나누어 각각에 실증적 예가 제시되어 있다. 심술지요에 관한 예로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고,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백이의 마음씀을 위시하여, 담대멸명(膽大滅明)의 공적인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지칙에 관한 예로는 남용의 말을 삼가는 태도, 자로의 약속실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의복지제에 관하여는 자로의 옷에 대한 무관심, 자강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의복, 길쌈하는 여인의 근면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음식지절에서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만으로 누추한 마을에서 살지만 그 학문하는 즐거움을 변치 않는' 안회의 뛰어남이 언급되어 있다.

경 신	심술지요 위의지칙	근신 태도 신의	1, 4 2, 3 5
	의복지제	검소한 의복 의복제조	6, 7 8
	음식지절	악식의 낙	9
통 론	교육의 필요성 예의 공경지심 바른 몸가짐의 강조		1 2 3

통론은 모두 3장으로 1장은 교육의 필요성, 2장은 공경지심, 3장은 위의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5. 가언편(嘉言篇)과 선행편(善行篇)

가언편에서는 광입교(廣立敎) 14장, 광명륜(廣明倫) 41장, 광경신(廣敬身) 36장 등의 소절 91장과 선행편의 실입교(實立敎) 8장, 실명륜(實明倫) 45장, 실경신(實敬身) 28장 등의 소절 81장으로 모두 172장으로 되어 있다. 가언편과 선행편은 입교·명륜·경신 편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가언·선행은 전대(前代)의 전기를 참고하고 비교적 최근에 보고 들은 견문을 모아 그 중에서 교훈이 될 만한 말과 모범적인 행실을 선택하여 만들었다. 특히 가언 편에는 송대의 것이 8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송사대부들에 대한 주자의 경모심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24]

24) 주자대전 권 75, 程氏遺書後書.

Ⅲ. 도덕교육이론과『소학』

『소학』그 자체에는 도덕교육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소학』은 유학입문서로서 아동용 윤리학습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교적 전통 하에서의 교육은 바로 도덕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에『소학』에 함축된 교육방식을 도덕교육 방식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현대도덕교육이론과 관련해『소학』에 함축된 도덕교육방식을 분석하여 4장에서의『소학』의 도덕교육 활용가능성을 알아본다.

1. 내용구성

중학교 도덕과의 일반적인 목표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의 인류 공영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라고 제시하고, 그 하위의 교육목표는 4개의 생활 영역별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도덕과의 교육목표 설정은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을 통합하여 도덕적 지식, 가치 판단 능력, 행동 실천 의지를 순차적으로 정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계열성을 중시하여 설정하고 있다. 학년 목표의 특징은 1~2학년 과정에서는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실천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가치 판단 능력 신장과 생활 원리의 체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25]

---

25)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p.188-194 참조.

도덕과 7차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격을 대표하는 20개의 주요 가치·덕목을 핵심 내용으로 4개의 생활 영역별로 구성하고 있다. 즉 개인 생활 영역에서는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를,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에서는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애향을,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을,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는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통일, 인류애의 모두 20개의 덕목을 선정하여 일관되게 제시하여 심화·내면화되어 행동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년별 내용을 보면, 중학교 1학년 개인 생활 영역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밝히는 것이며,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공동체적 기초 질서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살려 『소학』에서 강조하였던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원칙을 따르며 전통적 가예를 존중하고 특히 경로 사상을 중시하고 있다. 학교 예절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예절과 학교 친구간의 예절을 다루고 있는데, 『소학』 경신편의 수신의 요체로 제시되는 경의 정신을 오늘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의 사회생활 내용은 현대 사회 속에 남아 있는 전통 도덕적 요소와 서구 사회의 시민 윤리 내용을 비교해 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시민 윤리와 경제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통 도덕과 윤리의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시민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절제와 아량, 믿음과 의리, 예의와 염치, 청렴과 검소의 덕목을 강조하고, 시민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타인의 권리 존중과 평등, 합리적인 사고와 자율성 중시, 타인의 역할 존중과 책임 완수, 공과 사의 구분,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 및 강한 고발 정신 등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민족 생활 내용은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민족의 얼을 정리하여 경천 사상, 생명 존중 사상, 조화 정신, 평화 애호 정신, 선비 사상, 장인 정신, 공동체 의식, 경로 효친 사상, 풍류 사상 등을 필수적인 내용 요소로 하

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의 내용은 주당 수업 시간이 1시간 축소되었기 때문에 소단원의 주제도 3가지로 축소되어 개인 생활 내용은 개인 삶에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능력 신장을 위한 주제를 제공하고 판단을 내리는 학습 경험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가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이웃・학교 생활 내용은 가정・이웃・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당면하는 제반 삶의 문제와 도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 과제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가족・이웃 간의 갈등 문제는 물론이고 교우간의 갈등 문제인 '왕따' 현상에 대처하는 방안, 이성 문제의 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6]

이처럼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도덕과의 내용을 학생들의 발달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생활 영역별로 분류하여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소학』에서는 각 생활 영역의 주체를 개인이라고 생각할 때『소학』의 구성을 생활 영역별로 지도 내용을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소학』의 구성을 도덕과 교육과정에 쉽게 접목 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교, 명륜, 경신편에 있는 내용을 개인・가정・사회생활 3개 영역별로 분류 할 수 있다.

개인 생활 영역에서는 개인의 올바른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수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검소한 신념을 갖고 행동 할 것을 강조한『소학』의 내용들과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입교 편의 배우는 자의 올바른 태도, 명륜 편의 자신의 몸을 손상되지 않게 잘 보전하는 일, 경신편의 바른 마음가짐, 바른 몸가짐, 바른 의복 예절, 바른 식사 예절 등은 개인이 알고 실천해야 될 올바른 행동 규범이라 볼 수 있으며, 개인 생활 영역에서 지도되어야 할 가치・덕목이라 생각한다.

가정 생활 영역에서 가정이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며, 가정생활은 가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하는 생활을 의미하므로 가정생활의 주체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부모는 자

26) 위의 책, p.199-210 참조.

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친족 간의 화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효 의식과 친족 간의 화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효 의식과 친족 간의 화목을 위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덕목으로 즐거움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일, 부모의 병환에 정성을 다하는 일, 부모의 상에 슬픔을 다하는 일, 부모의 제사를 엄숙히 모시는 일,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일 등이 있다.

사회생활 영역에서 사회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하며 사회생활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의미하므로 질서 지키기가 사회생활에서는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다. 질서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유지되는 것이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 동료 간의 믿음 등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소학』의 내용으로 장유의 관계 특히 어른을 공경히 모셔야 함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친우간의 바람직한 관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즉 나이 드신 어른을 모시는 태도, 선생님을 모시는 태도, 어른과 술 마실 때의 태도, 친우간의 태도, 친우 선택의 방도, 친우 사귐의 태도 등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지도 되어야 할 가치·덕목이다.

2. 교육 목표

우리가 그려내려는 “이상적 인간상(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도덕교육활동에 방향과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중요하며 확고한 목표는 행위의 현재적 충실을 촉진시키기에 알맞다. 교육 목표가 어떻게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활발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목표는 분명해야 하고 또 지나치게 원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비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목표는 도덕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지 그 궁극적인 지향

점을 밝혀주고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 교과의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기타 여러 가지 관련 활동의 방향과 준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도덕과의 목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27]

첫째, 도덕과의 목표는 반드시 도달되고 실현될 수 있거나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어떤 하나의 제안된 지향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도덕과의 목표가 '끊임없이 분투노력해야 하는 하나의 지향점'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과 목표는 추구대상이 되는 가치가 상대적이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도덕과 목표로 제시된 윤리적 가치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정도의 항구성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셋째, 도덕과 목표는 또한 현실적으로 국가·사회적인 요구, 학습자 개인적인 요구, 교과 교육적인 요구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조망 하에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논문과 관련하여 도덕과 목표는 위 세 가지 요구 중에서도 특히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근간으로 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 요구를 무시하고 도덕 목표를 설정 했을 때, 도덕 목표는 시세에 따라 바뀌고 변경되어 급기야는 도덕과 교육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학』의 도덕교육 목표라 할 수 있는 오륜의 성실한 실천을 바탕으로 한 '성(性)'의 실현 내지 '덕(德)'의 함양은 지금까지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은 하나의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 도덕과 교육의 절대적 가치

27) 오미진, 「소학에 나타난 도덕교육 접근방식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52.

인 성을 실현하고 덕을 함양하는 것은 가치 면에서는 보편성과 절대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현재성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와 개인적 성장의 단계를 고려하는 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학』은 유가 교육적 사유체제 아래에서 편찬된 책이다. 그러므로 『소학』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이념은 곧 유가교육의 교육이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유가 교육은 전통적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 혹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을 강조하였다.[28] 신유학자들은 공자, 맹자 등의 선진 유학자들의 사상을 매우 존중하며 계승 발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성현의 인격전형을 이상으로 하였으며, 인륜의 표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신유가의 교육이상은 존신(尊身), 수신(修身), 성신(成身) 등을 제시함으로서 '성신지학(成身之學)'을 완성하였으며,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목표로서 '학위성현(學爲聖賢)'을 강조하였던 것이다[29]. 이러한 신유가의 성향으로 볼 때, 그 대표격인 주희의 교육이념은 당연히 성현의 길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소학』의 교육이념을 성인(聖人)에 둠은 당연한 것이다. 본래 성인이란 『소학서제(小學書題)』에 "오직 성인은 타고난 성품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 넓고 넓어서 하늘과 같으니, 조금도 더하지 않더라도 모든 착함이 넉넉하다."라고 하였듯이, 천도와 인도가 합일되어 자연의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성인을 만들자는 것이 『소학』 교육의 이념인 것이다.

『소학』의 교육 목적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데 있다. 『소학제사(小學題辭)』에 보면,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도(天道)의 떳떳함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성(人性)의 벼리이다. 무릇 이 성은 그 처음이 선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여 본연지성(本然之性)의 순선(純善)을 말하고 있다. 한편 "물욕(物慾)이 서로 가리워져 마침내 그 벼리가 무너진다"라고 하여 본성의 발현이

28) 조현규, 『주희 소학의 교육철학적 의미』 (교육철학 제 18집, 2000), p.327.
29) 정진일, 『동양의 지혜』 (청암미디어, 1994), p.119-129참조.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기의 응취(凝聚) 속에 실려 있는 성의 기질지성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 기질에 구속되면 정욕이 발동되어 물욕을 탐하기 때문에 본래의 성품이 가려지게 되어 현·우(賢·愚)의 구별이 생긴다는 것이다.[30] 따라서 『소학』에서는 교육을 인간의 기질지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물욕을 제거하여 착한 본성대로 행동하는 도덕적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병이(秉彝: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떳떳한 천성)의 도리를 밝혀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다.[31] 즉 『소학』은 본성을 온전한 덕으로 소유한 성인과 같은 유덕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맹자와 순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도덕적인 普遍性(道德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소학』에서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도덕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륜을 제시하여

>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히 살면서 인륜이라는 것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32]

고 강조한다. 인륜은 곧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다섯 가지 덕목으로 요약되는데 곧 오륜이다. 오륜은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성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소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33] 즉 사람의 떳떳한 성품인 오륜은 『소학』의 핵심 교육 내용으로 『소학』 전편에 걸쳐 가장 강조되는 부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을 핵심으로 하여 의·별·서·신의 덕목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것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

30) 정진일, 『유교철학원론』 (문학바탕, 2005), p.199 참조.

31) 『소학』, 「소학제사」; 愛親敬兄 忠君弟長 是曰秉彝 有順無彊 惟聖性者 活活其天 不加毫末 萬善足焉.

32) 『소학』, 「입교」, 5장; 孟子曰, 人之有道也, 飽食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33) 정진일, 위의 책, p.341 참조.

한편, 오륜의 덕목 실천을 통하여 『소학』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성인의 경지는 일반인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누구나 노력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소학』에서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시되는 군자는 품성을 기준으로 지칭되는 인간상으로 유가의 표준적 인간상이기도 하다. 군자는 항상 반성하고 궁행하는 도덕 실천을 통해 최종 목표인 성인을 추구하는 자이다.[34] 따라서 군자는 평생 동안 인간의 본질인 인(仁)을 추구하여 항상 새롭게 상달하려고 애쓰는 자로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자기 갱신을 도모하는 되어 가는 자이며, 평생 사람됨을 추구하는 학습자이며, 호학자(好學者)라 할 수 있다.[35]

그러므로 교육에 의해 성인, 군자가 된다는 것은 기질에 의해 가려진 마음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소학』에서는 이러한 본성회복의 공부를 위해 본연의 성이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어릴 적부터 선한 것을 말해 주고 보여 주어 그것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해야 하며, 쓸고 닦는 것과 같은 자제의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교만하고 나태한 마음을 고쳐 안정되고 공손하게 갖는 경공부를 성학의 처음이자 끝으로 하여 한결같이 수신의 요체로 강조하고 있다.[36]

또한 『소학』은 배우는 자들은 본성의 덕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위기지학[37]하는 도덕적 정진을 하여 성인과 같은 '덕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 인간성을 실현하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도덕교육에서도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34) 정진일, 위의 책, p.292 참조.
35)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아세아 문화사, 1999), p.329 참조.
36) 『소학』, 「어제소학서」; 敬者 聖學之所以聖始聖終 徹上徹下 而敬怠之間 未凶立判.
37) 위기지학이란 『논어』 「헌문」 25장의 孔子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이라하여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수양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지금 사람들은 남을 위한 공부를 한다고 하여 공자는 당시 사람들이 출세와 권세를 위한 공부에 주력하고, 자신의 인품을 쌓는데 게을리 함을 한탄하고 있다.

뒤르껭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상적이고 유일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그가 소속된 특정한 공통체의 도덕적 분위기와 이상에 따라서 행위하는 사람이다[38]. 동시에 뒤르껭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분명한 형식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어떤 사회에서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3가지 기본적인 능력들은 규율의 존중, 사회에 대한 애착, 자율성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뒤르껭이 인류공동체의 생활과 개인의 생활에 고유한 것으로서 가정하고 있는 특질들이다. 따라서 어떠한 학생에게라도 이러한 특질들을 이끌어내어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존중되고 있는 이상과 관행에 입각하여 행위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사회화가 된 사람이다. 그러한 의무와 강제는 이 같은 사회화가 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치로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한다.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의 행위와 가치에 대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콜버그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반성하고, 대안 등을 고려하며 습관, 법, 혹은 일시적인 생각 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의”라는 가장 일반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에 이르고, 이러한 심사숙고를 행위로 옮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콜버그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도덕적 심사숙고와 도덕적 판단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

38) 남궁달화, 『도덕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1998), p.150 참조.

이상과 같이 『소학』 교육에서의 공동체의 도덕적 이념에 부합되는 도덕적 인간상은 현대도덕교육이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학』 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교수학습 방법

현대도덕교육이론의 경향에 근거해 나누어 볼 수 있는 『소학』의 교육방법에는 우선, 『소학』의 입교 편에서는 연령을 중시한 교육의 방법이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소학』의 교육 원리는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써 사람됨을 배워 나가는 행동, 실천을 중시하는 하학상달(下學上達)의 방법이다. 하학상달은 형이하의 구체적이고 비근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형이상의 높은 진리에까지 도달한다는 공자의 학문방법[39]이다. 『소학』은 이와 같은 하학상달의 교육 원리에 따라 우선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 습관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먼저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익혀 궁극적으로 만물의 이치(理)를 터득하는데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학문이란 원래 시작부터 완전히 무르익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변에 가깝고 평범하며 명백한 것부터 단계를 밟아서 배우고 익혀서 드디어는 천리를 궁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유가의 덕성 발달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공자가 말한 학문의 진전 단계를 들 수 있겠다.[40] 이는 사람이 덕에 나아가는 순서가 '수신궁리에 뜻을 두는 단계' - '수신궁리의 뜻이 완전히 굳건해지는 단계' - '모든 사물의 이치에 판별력이 명확해지는 단계' - '하늘이 부여한 성의 지선함을 아는 단계' - '지선을 앎이 지긋해져 애써 생각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단계' - '본심이 완전히 밝아져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법도 아님이 없는 단계'로 이루

39) 『논어』, 「헌문」, 37장;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정진일, 『동양의 지혜』 (청암미디어, 1994), p.26 참조.

40) 『논어』 :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어짐을 말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도덕적 정진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령에 따른 도덕성 발달은 위와 같은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순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경험과 지혜가 갑자기 등급을 넘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덕성의 단계적 발전은 연령이 성장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사람마다 도덕적 정진과 지혜의 성장에 따라 그 연령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높은 등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 등급의 도덕적 정진과 지혜의 성장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배움에 있어서 등급을 뛰어넘어서는 안된다(學不躐等)'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이다.

한편 오늘날 우리나라 도덕 교과 내용 선정과 조직 원리는 사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덕과 교육 내용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주자의 『소학』-『대학』 계제론[41]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두 교육론이 기반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빼고 생각한다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론에 입각한 내용 선정과 조직원리는 형식상 주자의 『소학』-『대학』 계제론을 구체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학』-『대학』 계제론을 오늘날 우리나라 도덕과 내용 선정과 조직의 면에서 적용하는 방향은 『소학』-『대학』 계제론을 대원칙으로 삼고, 콜버그 발달론 형식이 보여주고 있는 차원 정도로 지식의 단계와 행동실천의 단계를 보다 세분화된 단계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소학』에서는 교육방법으로 행동실천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 『소학』의 교육방법은 물 뿌리고 비질하며 바르게 응대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웃어른을 공경하되 행실이 혹시라도 이에 어긋남이 없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규범을 실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시경을 외우고

41) 이 '『소학』-『대학』 계제론'은 朴連鎬의 「주자학의 근본배양설과 조선전기의 소학교육」이란 논문에 근거한다. '『소학』-『대학』 계제론'은 『소학』-『대학』은 하나의 공통된 도에 올라가기 위하여 '사닥다리'의 계단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서경을 읽으며, 읊고 노래하여 음악의 소리를 익히고, 춤추고 뛰어 음악의 모양을 익혀,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에서 넘침이 없게 하는 것이다.[42]

『소학』의 교육방법은 어린 학습자에게 '쇄소응대진퇴지절(灑掃應對進退之節)'과 같은 일상생활의 도리와 효제충신의 윤리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함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린 학습자를 교육하는데 행동실천을 통하여 인의를 가르치는데 우선성이 있지, 고달한 사유를 가르치는데 우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소학』교육에서 이같이 쇄소응대진퇴지절을 강조하는 데는 『소학』 나름의 덕성 발달에 관한 관점이 있다. 이는 덕성이 인지 내지는 지식이 단독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덕을 잡음이 굳건해지고 안정되어 간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처럼 '예(豫)'의 원리에 의하여 행동학습을 우선시한다고 했을 때, 소자(小子)들은 어떻게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어 소위 '자율적인 도덕'을 행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주자는 이 문제를 '습관과 함께 지혜가 성장한다'는 구절에 논거를 두고 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주자는 어렸을 때 행동의 익힘(행동학습)은 성장 후 지혜의 성장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반드시 어릴 때에 강하여 익히게 한 것은 그 익힘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거슬려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해서이다.[43]

이는 사람이 어릴 때에는 마음과 지혜가 미성숙하여 주장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때 올바른 가르침은 곧바로 학습자의 마음과 지혜로 자리 잡을 수

42) 『소학』, 「『소학』제사」 : 古者小學, 灑掃應對, 入孝出恭, 動罔或逾, 行有餘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罔或逾.
43) 『소학』, 「소학서제」 : 而必使其講而習之於幼穉之時 欲其習與智長 化與心成 而無扞格不勝之患也.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선한 감정과 올바른 지혜가 쌓이기 전에, 다른 악한 감정이나 이단의 사설이 들어가서 끝내는 가르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의 구절은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나이가 어릴 때 배우고 익히게 하는 이유를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습관화가 지혜와 함께 성장하고 그 내면화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져서 서로 충돌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기 위함이다. 즉, 나이가 어릴 때 성인의 말과 의론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면, 그 결과로 습관화가 지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학』은 행동 실천과 습여지장(習與智長)을 강조 하나, 또한 유가 교육적 관점에서 덕성은 반드시 일상의 도덕적 행동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인지도 아울러 성장하는 것이지, 인지만 육성한다고 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일은 상정할 수 없다고 본다. 『소학』에서는 도덕적 행동 실천이 없는 인지만의 성장을 의도하는 모든 노력을 차라리 도덕성의 발달을 가로 막는 즉, '거슬려 감당하지 못하는'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학』의 교육방법으로 수범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수범학습은 모범인물학습과 경전독서법으로 나눌 수 있다. 모범인물학습은 통념상 가르치는 자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배우는 자가 그것을 본받게 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즉 가르치는 자가 모범적인 행동을 직접 실천하여 보여줌으로써 배우는 자들이 감화를 받아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모방의 대상이나 모범 인물이 단순한 성인을 의미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때 모범 인물은 단순한 모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정진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의 내적 준거를 제시하는 존재인 것이다. 『소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범 인물 학습은 바로 성인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학문과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 학습인 것이다. 이에 『소학』에서는 전편에 걸쳐서 각 편마다 수많은 성현들의 모범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경전 독서법이 있다. 모범인물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는 덕교육의

방법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덕행의 모범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덕을 소유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성인의 언행과 사상이 담긴 경전을 학습하고 관찰하여 자기의 배움의 준거로 삼는다면 모범 인물학습법은 다른 차원에서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근본을 배양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도 필요하지만 성인의 언행이 담긴 경전을 숙독 완미하는 것도 자신의 몸에 절실하게 체득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간접적인 수범학습의 방법은 경전을 숙독 완미하여 체득하는 방법 이외에도 역사서를 읽고 고사를 듣는 것, 명언명구를 암송하여 자연스럽게 덕성이 길러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범학습의 원리가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 자신들이 모범 인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소학』 교육에서 교사는 전통의 안내자이고 실천가이며 모범자이고 권위자이다. 즉 가르치는 매개체로서의 교재가 전통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전범이어야 한다면,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전범에 입문시키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전형적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누구보다 먼저 덕을 닦고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입교편에서는 자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스승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무릇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여러 어머니들 중에 가한 자를 가려 뽑되, 반드시 너그럽고 여유 있으며,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말이 적은 자를 구하여 자식의 스승을 삼아야 한다.[44]

자식을 가르치는 스승의 선택조건으로 인격 수양이 된 자를 자식의 스승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교육 기관에서는 전공 실력뿐

44) 『소학』, 「입교」;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使爲子師.

만 아니라 인격 수양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현대도덕교육이론에서 모든 교사의 도덕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사회화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도덕교육이론 중 가치명료화이론에서 교사는 가치갈등 상황 속에서 가치화과정에 따라서 가치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발달시키는 자, 가치 갈등상황 속에서 적절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자아표현을 고무시켜서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 콜버그와 윌슨은 교사는 도덕적 심사숙고 과정이나 도덕판단 과정의 교수자 및 촉진자이며 사회화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뒤르껭은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사회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곧, 교사는 특정한 사회가 지닌 훌륭한 가치의 옹호자인 동시에 전달자, 규율과 금지의 대변자, 상징,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소학』교육과 뒤르껭의 도덕교육이론에서는 모든 교사의 도덕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도덕적 사회화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데에『소학』교육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4. 교수학습 원리

1) 도덕성 발달 촉진의 원리

도덕과 교육에서는 바람직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바람직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도덕과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행위'는 인간관계에서 요구하는 규칙 혹은 원리, 즉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도덕성'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

력 혹은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행위와 관계된 규범을 알고, 알고 있는 규범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즉, 도덕성에는 지적요소와 행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두 요소간의 관계를 영국의 도덕 철학자 노웰-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노웰-스미스에 의하면 인간의 잘못된 도덕적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잘못된 도덕적 원리나 규칙, 즉 잘못된 규범을 신봉하고 준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도덕적 규칙, 혹은 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잘못은 행위자의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후자의 잘못은 실천 동기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지식 부족이 '무지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면, 동기의 부족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적 능력의 부족은 '비도덕적'이라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5]

지금까지 도덕성과 관련된 도덕적 행위의 지적 조건과 행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소학』의 내용은 도덕적 행위의 구성요소인 지적, 행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적 요소를 강조하여 실천위주의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소학서제(小學書題)」에 나타난 "옛날 소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되,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방도로써 하였으니, 이는 모두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히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도덕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교육의 기본 내용 선정 기준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기본 도덕교육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일의 교육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절 바르게 응대하는 언어 예절의

45) 오미진, 「소학에 나타난 도덕교육 접근방식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56.

교육이며, 셋째는 몸가짐의 절도와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친구들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소학』내용은 위의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덕목들을 편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교육은 그 구체적인 규범의 양상은 달라져야 하겠지만, 현대의 도덕교육은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핵심 내용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소학』내용은 '도덕적 행위'의 지적, 행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도덕교육론에 내용 선정의 원칙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정서지능과『소학』내용을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정서지능 이론에서는 정서지능이 발달하면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에서도 원만한 삶을 영위함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원만한 삶이란 도덕적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지능과 인지와 도덕적 삶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니얼 골먼은『감성 지능 상』에서 정서지능의 요소를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할 줄 알고, 그 감정을 타인에게도 적절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를 삭일 줄 알며, 사물을 가급적 낙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46] 또한 독일의 도리스 마틴과 카린 벡이 쓴『EQ』도 골먼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정서지능의 요소로 '자기감정의 정확한 인식, 감정의 조절과 통제, 타인과의 감정 소통능력, 사회적 관계의 형성, 잠재능력의 개발' 을 제시하고 있다.[47] 이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적절히 발휘되면 원만한 대인관계로 나타난다고 다니엘 골먼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원만한 대인관계란 바로 원만한 도덕적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요소의 내용들은 도덕성 계발과 관계가 있으므로, 정서지능을 함양하면 도덕성도 함양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소학』내용들 중에는 정서지능 구성요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물에 임하여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며, 난에 임하여 구차게 모면

46) Daniel Goleman, 황태호 譯, 『감성지능 상』 (비전코리아, 1997), p.75.
47) Doris Maertin, Karin Boeck 공저, 홍명희 譯, 『EQ』 (해냄, 1996), p.84-117.

하려고 하지 말며, 싸움에 이기기를 구하지 말며, 재물을 나눌 때에는 많기를 바라지 말라."[48] "오만한 마음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되며,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되며, 뜻을 자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즐거운 마음을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된다."[49] 는 내용은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중 '충동을 자제하고', '분노를 삭일 줄 알며'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 계발을 촉진하는 정서지능의 함양 측면에서도 『소학』 내용은 도덕과 지도 내용으로써 매우 의의 있다고 생각된다.

2) 형식보다 내용중심의 교육원리

『소학』 교육 이념에 의하면, 『소학』은 형식(규칙과 원리)보다는 내용(덕목과 규범)중심의 교수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학』교육단계는 기존의 일상적 사회규범에 대한 도덕적 훈련과 사회화에 해당하는 교육단계이고, 대학교육단계는 도덕의 원리를 궁구하면서 개인의 주체적 자아확립을 위한 교육단계인 것이다.[50]

내용 중심의 『소학』 교육에서 우리는 최근의 도덕교육론적 경향과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덕교육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은 자유주의 전통의 이른바 '원리 중심의 윤리'에 기반을 둔 콜버그류의 발달론적 도덕교육론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교육이란, 도덕적 상황에 처한 학습자가 관련된 도덕규칙이나 원리를 성찰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덕적 사고 및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학습자들에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도덕적 행위 전통으로서의 덕목이나 규범 등을 가르치는 것은 맹목적이며, 또한 도덕적 습관을 형성시키려는 것은 교육이 아니므로, 사회의 규범이나 관례와 같은 행위전통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규칙이나

48) 『소학』, 「경신」 : 臨財毋苟得, 臨難毋苟免, 狠毋求勝, 分毋求多.
49) 『소학』, 「경신」 : 敖不可長, 欲不可從, 志不可滿, 樂不可極.
50) 강봉수, 「인격과 덕성함양의 교육적 전통」, 『유교 도덕교육론』 (원미사, 2001), p.19.

원리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율론적 접근이 도덕교육에서 형식을 강조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덕교육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회에서 지지되는 도덕적 가치 곧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51] 그런데 실제적인 도덕적 규범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도덕적 사고의 형식 발달만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사고의 형식을 강조했던 콜버그 자신도 후기에 와서 자신의 주장을 후퇴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덕교육에 있어서 자율성, 합리성 등과 같은 개인의 존엄성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내용' 없는 '형식'의 도덕교육으로 일관해 왔고, 그 반대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존재의 사회적 본질 및 공동체, 공동체의 위대한 전통으로서의 규범이나 덕목과 같은 '내용'들을 간과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도덕교육에 대한 덕교육적 접근에 찬동하면서 공동체의 '위대한 전통'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의 위대한 전통을 교육하는 것은 맹목적인 '주입'과는 다른 것이며, 전통에 기초한 합리성을 찾아서 교육하는 이른바 '도덕적 사회화'인 것이다.[52]

도덕적 사회화와 관련하여 윌슨과 콜버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53] '도덕적 사회화는 도덕판단능력 함양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하부구조가 된다' 도덕적 문제사태를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판단능력이다. 바로 도덕적 문제사태란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2~3가지 이상의 규범이나 입장을 동시에 지키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정한 규범이나 입장에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적인 갈등(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사태는 성립되지 않는다. 뒤르껭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들이

51) 박병기, 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인간사랑, 1996), p.162-175.
52) 강봉수, 「인격과 덕성함양의 교육적 전통」, 『유교 도덕교육론』(원미사, 2001), p.19-20.
53) 남궁달화, 『도덕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1998), p.169, p.291 참조.

도덕적으로 사회화가 되어야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터스는 '이성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습관의 뜰을 거쳐야 한다. 즉 이성을 구사할 줄 아는 자율적인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속한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도덕 규범에 사회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도덕교육은 공동체의 행위전통을 교육하는 '내용'(덕목과 규범)의 도덕교육과 더불어, 전통에 기초한 도덕원리를 찾아 교육하는 '형식'(규칙과 원리)의 도덕교육이 공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54] 이러한 현대도덕교육 이론에서 『소학』과 같은 덕목론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덕목론적 관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오늘날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54) 강봉수, 위의 책, p.21.

Ⅳ.『소학』의 도덕교육 활용 가능성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소학』을 활용한 도덕교육과『소학』의 도덕교육 한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소학』을 활용한 도덕교육

입교편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서 출생 전의 태교를 강조한 가르침[55]은 오늘날 청소년의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성윤리의 부재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줄 수 있으며, 성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면 성의 바른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남녀 차별적인 교육 내용은 과거 남자우위의 농경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 실시되었던 교육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려고 한 점은 오늘날 교육 과정을 구성함에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8세부터 문의 드나듦과 자리에 앉고, 음식을 먹음에 어른들 보다 뒤에 하는 사양의 예를 가르친 점은 어려서부터 기초예절 교육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어른에 대한 예절이 부족한 오늘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다. 육덕은 올바른 마음의 바탕이 되며 육행은 화목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행동이 되며, 육례는 개인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이다. 오늘날 물질적 가치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재화에만 마음이 있어 올바른 품성을 키우지 못하며, 친족 간에도 점점 소원해져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덕·행·예의 삼물 교육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부

55)『소학』,「입교」, 1장; 列女傳曰, 古者, 婦人妊子, 寢不側. 坐不邊. 立不蹕. 不食邪味. 割不正不食. 席不正不坐. 目不視邪色. 耳不聽淫聲. 夜則令瞽誦詩. 道正事. 如此則生子, 形容端正. 才過人矣.

모와 어른의 모범을 강조하는 가르침[56]은 사춘기의 반항적 기질과 일탈행동의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기성세대의 솔선수범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입교편에서의 '본보기' 교육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집단의 모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본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의 진지한 자세, 즉 공경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7]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모나 어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는 지도층 인사의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사회적 본보기가 상실된 실정이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대중사회에서는 부모와 사회적 지도층, 어른 등의 인격적 수양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입교편에서 제시된 배우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 먼저 인격이 수양된 이후에 학문을 해야 진정한 수기의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패륜의 범죄는 물론이고 교실의 붕괴, 학교의 위기와 같은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명륜편에서의 부자지친에서는 효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문화가 달라진 오늘날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헤아려 실천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인 양지의 효는 핵가족으로 변한 오늘날의 우리 가정 모습에서 연세 많은 부모의 외로움, 소외감을 생각할 때,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진정한 효는 부모를 우선 생각하며, 대의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으로, 오늘날 부모 모시기를 꺼리고 심지어 늙고 병든 부모를 유기까지 하는 패륜의 현실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에게 참된 효의 의미를 자각케 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부모의 제사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우의와 화목을 다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핵가족 시대의 발전적인 가족 관계를 확립해 가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평소의 거처, 봉양, 병간호, 초상, 제사 모실 때의 경우[58]에서 보듯이

56) 『소학』, 「입교」, 3장; 曲禮曰, 幼子常視毋誑, 立必正方, 不傾聽.
57) 최봉영, 『한국 교육의 본질과 오도』 (전통과 현대, 1998년 여름호), p.69 참조.

효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이 항상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따라서 오륜의 첫 번째 덕목인 친은 예나 지금이나 가족 윤리의 표상으로 변함이 없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식은 낳아 주고 길러 주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천륜이다. 인간의 사회적 윤리 의식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덕목은 오늘날 사회윤리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군신지의에서 충의 내용은 왕에게 충성은 바로 국가나 소속집단에의 의무 수행과 성실성의 실천이라는 전제에서 해석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치체제,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해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공적인 일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음미해 볼 수 있다. 부부지별에서는 혼인의 예, 남녀 행위의 예, 부인 순종의 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과거 우리 여성들이 가정의 이상과 가풍, 그리고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부덕를 닦고 길러 나간 점 등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별의 의미를 단순히 남녀의 차별로만 인식하여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지별의 본래 뜻은 부부의 직책과 역할이 서로 다름을 말하고 남편과 아내는 분별 있게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는 뜻이지 차별성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별의 근본적인 의미는 두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다른 그대로 구별을 해서 인격을 완성시키고 자기의 직능을 완수하자는 것이다[59]. 즉 부부지별은 부부가 지켜야 할 덕목을 밝힌 것으로 이는 혼인을 하게 되면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다른 여자를 구별해야 하며,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남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부지별의 현대적 의미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재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유지서는 어른 공경, 겸손한 자세, 용의 단정, 언행 신중, 바른 청소법,

58) 『소학』, 「명륜」 36장;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이것이 이른바 효자가 마땅히 일생동안 실천해야 한다는 五孝이다.
59) 정진일, 『유교철학』 (조선대학교 출판국, 1997), p.307.

올바른 수업태도 등은 기본 습관의 정착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장유의 서의 덕목은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윤리의 기본이 되며, 사회에서는 경장의 도리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 윤리의 실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가치의 갈등과 충돌문제에서 가치 개념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붕우지교의 내용들은 서로간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 남을 믿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덕목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인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교우의 내용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우의 바탕이 되는 신의 덕목은 비단 붕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 있어 상대방을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생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라도 자기를 대신해서 일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간사회의 신뢰구축을 위해 사회생활의 윤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범이다. 따라서 신의 덕목은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 현대 사회에 더욱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60]

『소학』의 경신 편의 내용들은 신독(愼獨)을 통해 존심양성(存心養性), 거경궁리(居敬窮理)하는 수양(修養)의 태도를 밝힌 것으로, 청소년들의 바른 성정함양을 위한 도덕교육 자료로 적합하다고 본다. 일체의 행동거지(行動擧止)를 예에 맞도록 하는 몸의 수렴이야말로 초학자들에게는 마음의 수렴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들의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한 버릇없음, 자기중심적 사고, 인내심 부족, 무절제 등 부정적인 성향을 생각할 때, 경신 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음가짐의 요령, 몸가짐의 법도,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예절 등의 내용은 청소년의 도덕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한 것들이다.

---

60) 송석준, 「유교의 사회관」, 『현대인의 유교 읽기』(아세아 문화사, 1999), p.6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소학』교육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변화된 시공간 속에서도『소학』이 지니는 본래 정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여 학생들의 바른 도덕성 함양을 위한 지도 자료로 활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오늘날 학교 도덕교육의 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덕윤리학적 관점이고 둘째는 통합적 인격교육의 관점이며 셋째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61)

첫째로 오늘날 학교 도덕교육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덕윤리학적 관점에 입각한 도덕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 원리들을 밝히는 규칙윤리학과는 달리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지니고 있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덕윤리학은 종래의 의무 내지 규칙 중심의 윤리학에 기반을 둔 도덕교육이 지식과 판단력 중심의 주지주의적 접근에 치우쳤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온전한 도덕교육을 실행하고 도덕적 삶에 필요한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몸으로 구현해 가는 그러한 도덕적 덕성과 인격 특성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둘째로 또 하나의 중요한 동향인 통합적 인격교육 관점의 도덕교육을 들 수 있다. 지난날의 도덕교육이 도덕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인식시키는 데에 머물러 관념화, 추상화 되게 만듦으로써 지적능력을 키우는 데에만 초점이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로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기보다 도덕을 아는 사람들로 키워졌다. 이러한 문제는 인격 교육이란 새로운 도덕적 접근으로 그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이는 인격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셋째로 현대 도덕과의 흐름은 공동체 주의적 관점의 도덕교육을 들 수 있다. 개인주의화・이기주의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속에서 정의로운 도덕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이웃과 더불어 조화로운

61) 이택휘, 유병열 공저, 『도덕교육론』 (양지원, 2000), p.33-58 참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기완성과 행복의 실현을 추구하는 인격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 가지의 도덕교육의 흐름 속에서 덕교육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란 것이다. 행위자의 인격 속에서 얼마나 도덕적 행동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그 방법에 있어 앎을 통한 실천보다는 실천을 통한 깨달음을 더 강조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도덕교육의 흐름은 덕교육이다. 행동적 습관화를 통한 덕의 함양이 그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동적 습관화를 강조했던『소학』을 통해 그 접근을 시도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덕교육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소학』의 교육방법이 오늘날 도덕교육 방법에 주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소학』의 행동실천 위주의 학습은 오늘날 학생들에게 '생활예절실천점검표' 같은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초 인륜 덕목을 실천하도록 고무 격려하는 방안, 봉사활동 학습을 도덕과 수업과 연계 지도하여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건전한 윤리적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방안 등에 그 전통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단계적인 학습 방법은 최근 학교교육에서 '상호작용적 멀티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한 개별화된 교수·학습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그 발전적 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소학』에 선현들의 사례와 언행 등을 바탕으로 한 수범학습을 통해 오늘날 도덕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성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날의 삶의 모습으로 구현해 내는 작업과 또한 지역인사, 전문 인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경전 독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범학습의 원리가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 자신들이 모범 인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소학』의 교육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소학』을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방법은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7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의 내용 편제에 따라 단원의 성격과 추구하는 주요 가치·덕목에 적합한 내용을『소학』에서 선정하여 교사가 일상적인 언어, 사고방식, 태도, 행동 등에 있어 모범을 보이면서 강의하여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소학』원전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특별 수업의 형태(탐구식 토의 학습)로 도덕과 수업의 중·대단원이 끝나는 부분에서 제시된『소학』의 관련 가치·덕목에 대하여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현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다.

셋째, 도덕실(예절실) 같은 도덕과의 특별식 수업을 통해 연간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통 사회의 서당의 학습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도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학생의 수준별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어,『소학』의 덕목들을 학생들에게 체득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넷째, 직접 도덕교과수업에 적용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의 원칙하에 생활지도 영역과 재량활동에도 적용하여 지도한다면『소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정신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보충·심화학습과 특정 영역 선택 학습으로 한자, 전통 음악 등의 학습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창의적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한자 교육시간을 할애한『소학』내용 관련 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학』을 활용한 도덕과 수업의 지도 방법은 감화 및 설득 방법, 탐구식 지도 방법, 실천·체험 중심의 지도 방법 등 다양한 방법과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실천·체험 중심의 지도 방법이 효

과적이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소학』을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활용할 때, 수업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내용들을 학년별, 단원별로 적합하게 선정하여 배치하는 것은 내용의 난이도와 학습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성되어져야 할 부분이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소학』의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한계

첫째, 『소학』은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이성은 도덕적 문제 사태 속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최근 도덕교육의 이론적 동향은 공동체적 전통에 기초하면서 '내용'과 '형식'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62] 그리고 인격과 덕교육론자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제 우리 전통에 기초한 합리성을 찾아 그것에 맞는 정의의 원칙과 도덕 원리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도덕교육은 공동체의 행위전통을 교육하는 '내용'의 도덕교육과 더불어, 전통에 기초한 도덕원리를 찾아 교육하는 '형식'의 도덕교육이 공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3]

이러한 도덕교육이론은 우리의 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64]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62) 이택휘, 유병열, 위의 책, p.33-58 참조.
63) 강봉수, 위의 책, p.21 참조.

즉,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율론적 접근방식과 전통적인 덕목론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양자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곧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규범들을 내용으로 제시하여 그것을 내면화시키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도덕과의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학』에서의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의 이성의 역할 경시는 오늘날 도덕교육이론과 관련하여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적 도덕성보다는 사회적 도덕성 함양에 편향되어 있다.

도덕성의 본질을 개인적인 경험으로서의 도덕성이냐,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도덕성이냐, 아니면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경험으로서의 도덕성이냐에 따라서 도덕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덕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65]

개인적 도덕성은 개인들이 도덕적 갈등상태에 직면하여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입각하여 그것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공동체가 부과하는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서 행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 사태 속에서 그러한 문제 사태를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또한 도덕교육의 방향은 개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 사태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거나 그러한 절차나 형식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66]

콜버그, 윌슨, 가치명료화접근,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닌 반도덕교육이론가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도덕성 발달은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경우에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64) 교육부, 『제7차 도덕과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29.
65) 남궁달화, 『도덕철학과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1998), p.28-32참조.
66) 남궁달화, 위의책, p.28-32 참조.

스스로의 힘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또한 외적인 부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도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소학』교육이 취하는 있는 입장인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도덕성은 공동체 속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을 규제하는) 보편적인 행위양식을 의미한다. 즉, 공동체가 부과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도덕적 이상에 따라서 행위 하는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도덕교육의 방향은 공동체의 지배적인 가치판단기준이나 도덕적 이상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도덕이론가들은 대체로 도덕성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양자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은 도덕성을 공동체 속에서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난 인간경험으로서 파악한다.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 등은 동료집단의 압력, 공동체의 분위기 등에 의하여 좌우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공동체의 일반적인 가치판단기준이나 도덕적 이상,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공동체의 그것들도 개인의 가치판단기준이나 도덕적 이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뒤르껭, 콜버그, 듀이 등은 도덕성의 상호작용주의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실재론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공경심과 외경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뒤르껭은 콜버그 및 듀이보다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개인발전의 원천으로서 사회의 역할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경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처럼 현대도덕교육이론에 비교하여『소학』교육은 개인적 도덕성 함양보다는 사회적 도덕성 함양에 편향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겠다.

셋째, 교수법에 대한 관심 결여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교수법이란 관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그러한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영역이며, 도덕교육이론을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으로 옮기는데 관여하고 있는 영역이다.

뒤르껭은 교수법의 본질에 대해 3가지 명백한 범주들을 구분하고 있다.[67]

1. 교육 : 부모와 교사가 어린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활동
2. 교육과학 : 교육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하여 왔던 현상들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예측하고 통제하는 활동
3. 교수법 : 교육의 관행에 관하여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

뒤르껭이 교사들과 더불어 도덕교육을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교육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교훈적인 처방보다는 교육의 관행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교육을 기계적인 자동인형처럼 관행의 속박 아래로 타락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교육의 관행을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뒤르껭은 구체적으로 도덕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규율정신,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 자율성 등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들고 있다.[68]

규율정신의 하위요소인 교사의 권위는 어린이들의 도덕생활에 결정적인 의무감을 발달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며, 질서유지 수단인 동시에 질서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는 확고부동함이 가혹함이나 야비함으로 타락되지 않도록 자비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뒤르껭에 따르면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을 발달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전략은 사회적 집단인 학급을 이용하는 것이다. 학급의 정신을 발달시키고, 학급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하며, 그리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지닌 학급을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교육의 세 번째 요소인 자율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정규과정 속에 있는 구체적인 과목들을 공식적으로 교수하는 것이다. 특

67) 남궁달화, 『도덕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1998), p.148 참조.
68) 남궁달화, 『도덕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1998), p.117-139 참조.

히, 역사, 과학, 사회학 등은 실재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의 직면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역사와 생활의 과정 및 사건 등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은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장래의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 활동, 프로그램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도덕교육이론에 비추어 보면 교수법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소학』은 동몽기의 교육에 분명한 체제와 원리를 제시하긴 했으나, 여러 경서에서 그 내용을 뽑아 어려운 글들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동몽 단계의 어린 아동이 곧바로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동몽의 학습서라기보다는 본격적인 학문의 시발점이 되는 초학서로 보는 견해[69]가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소학』의 교육 내용은 부분적으로 어린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며, 한문은 배우지 않는 초등 단계의 학생으로서는 원전을 바탕으로 한 참뜻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다. 경신 편에서 제기되는 수신의 요체는 성인이 되어서도 반드시 행해야 할 긴요한 것들로서 체득하기까지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습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도 내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소학』의 난해성과 체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오늘날 중학교 단계의 학생들은 대략 13~15세 정도로 전통 사회에서 『소학』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의 연령층에 해당되며, 심신의 성장을 통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써 『소학』의 덕목들을 체득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인습 이전 수준'과 '인습 수준'간의 중간에 있으며, 중학교 2학년생은 '인습 이전 수준'이 차츰 감소하고 '인습 수준'이 다수로 나타

69) 오석종, 「소학의 덕교육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p.160-161 참조.

나며, 중학교 3학년생은 '인습 이전 수준'은 거의 사라지고 대다수가 (78%) '인습 수준'에 있으며, '인습 이후 수준'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70]

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대부분 '인습 이전 수준'의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경우는 '생활 습관의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인습 수준' 단계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1·2학년에서는 주로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실천 의지 형성'에 그리고 3학년에서는 '가치 판단 능력 신장과 생활 원리의 체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에 『소학』을 지도 내용으로 활용할 경우도 도덕성 발달 단계에 알맞게 지도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현대도덕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소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장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인간의 도덕적 성장이 도덕에 관한 지식 위주이거나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정당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의 실천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지금에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0)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1999), p.191.

Ⅴ. 결 론

본 연구는『소학』의 도덕교육이론을 탐구함으로써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도덕교육에서 활용 가능한지 그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학』은 남송시대에 삼대의 이상적 교육을 실현하려한 주희의 의도에 따라 그의 문인 유청지가 여러 경전에서 구체적인 윤리적 덕목을 선별적으로 추출한 책이다. 고려말 주자학과 함께 한반도에 전래된 것으로 생각되는『소학』은 조선 건국과 더불어 통치 이념으로 사용되었다.

『소학』의 구성은 책 서두의 서문에 해당하는 주자의 소학서제(小學書題)와 소학제사(小學題辭)를 싣고 본문은 내편과 외편으로 나뉘어 내편에는 입교·명륜·경신·계고편으로, 외편은 가언·선행 편으로 되어 있다. 입교편에는 남녀가 나이에 따라 배워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명륜편은 쇄소·응대·진퇴의 예절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의 법도를 규정하였다. 경신편은 정이천의 정제엄숙설에 따라 지경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편의 가언·선행은 前代의 전기를 참고하고 비교적 최근에 보고 들은 견문을 모아 그 중에서 교훈이 될 만한 말과 모범적인 행실을 선택하여 만들었다.

현대도덕교육이론과 관련해『소학』에 함축된 도덕교육방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소학』의 구성을 도덕과 교육과정에 쉽게 접목 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교, 명륜, 경신편에 있는 내용을 개인·가정·사회생활 3개 영역별로 분류 할 수 있다. 둘째,『소학』은 공동체의 도덕적 이념에 부합되는 이상적 인간형성을 강조한다.『소학』의 교육적 인간상은 현대도덕교육이론에서 뒤르껭의 '도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군자는 인의예지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궁행실천하는 사람이며, 행동, 감정, 이성이 잘 조화된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소학』의 도덕교육적 목표와 내용·방법은 오늘날 체계적인 도덕교육을 행하는데 많은 시사

점을 제시하며『소학』의 교육 방법이 주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행동 실천 위주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 인륜 덕목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봉사활동 학습을 도덕과 수업과 연계 지도하여 건전한 윤리적 가치를 체험하게 한다. 단계적인 학습 방법은 최근 학교교육에서 '상호작용적 멀티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한 개별화된 교수·학습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그 발전적 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범학습을 통해 오늘날 도덕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성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날 모습으로 구현해 내는 작업과 또한 지역인사, 전문 인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경전 독해 등과 같은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 자신들이 모범 인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인지와 함께 습관화를 강조하는『소학』의 교육원리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는 정서지능을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소학』은 형식보다는 내용중심의 교수 원리 즉, 도덕적 사회화를 강조한다. 뒤르껭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들이 도덕적으로 사회화가 되어야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소학』의 도덕교육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소학』의 입교 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반인륜적 범죄는 물론이고 각종 청소년의 비행, 교실의 붕괴와 같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명륜 편은 오륜의 구체적인 덕목인 친·의·별·서·신의 가치실현을 통해 참다운 효도, 나라사랑의 자세, 역할과 본분의식, 공경과 질서의식,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자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소학』교육의 핵심내용이며, 오늘날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덕목이다. 경신 편은 수양의 요체인 경의 체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하여 물리를 통하게 하는 인격수양의 실천 방법들을 익히게 하고 있어, 요즘 청소년들의 버릇없음, 자기중심적 생활, 인내심 부족, 무분별한 소비 성향 등

의 부정적인 성향을 고쳐 줄 수 있는 요긴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학』은 도덕교육 활용에 있어서 한계 또한 보여준다. 첫째,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으며, 둘째, 개인적 도덕성보다는 사회적 도덕성 함양에 편향되어 있다. 셋째,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소학』은 동몽기의 교육에 분명한 체제와 원리를 제시하긴 했으나, 여러 경서에서 그 내용을 뽑아 어려운 글들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심신의 성장을 통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처럼 『소학』을 중학교 도덕과 수업에 활용할 때, 수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학년별, 단원별로 적합하게 선정하여 배치하는 것은 내용의 난이도와 학습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성되어져야 할 부분이며, 앞으로 이를 위한 준거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학』의 활용 사례를 다양화하여 현장 수업을 통한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호창 역주,『소학』(홍익출판사, 1999).

성백효 역주, 『소학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3).

이기석,『소학』(홍신문화사, 1989).

한광옥, 『재미있는 소학』 (풀잎, 1996).

함현찬, 『사자소학 교수용지도서』 (전통문화연구회, 1999).

김종권, 『소학신권』 (서문당, 1981).

강봉수, 『인격과 덕성함양의 교육적 전통 유교 도덕교육론』(원미사, 2001).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1997.

_____,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Ⅰ,Ⅱ』(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편찬위원회, 『중학교 도덕1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6).

박병기, 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인간사랑, 1996).

이택휘, 유병열, 『도덕교육론』 (양서원, 2000).

남궁달화, 『도덕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1998).

_____,「도덕철학과 도덕교육」(교육과학사, 1998).

송석준 외, 『현대인의 유교 읽기』 (아세아 문화사, 1999).

이강수,「원시유가의 인간관」, 한국동양철학회편,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연세대학교출판부, 1982)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아세아 문화사, 1999).

조현규, 『주희 소학의 교육철학적 의미』 (교육철학 제 18집, 2000),

이회덕, 『고려 유교정치사상의 연구』 (일조각, 1984).

부남철, 『현대사회와 유교적 가치관』, 계간 전통과 현대』 (전통과 현대사, 겨울호 통권 22호, 2002).

정진일, 『유교철학원론』(문학바탕, 2005).

_____, 『동양의 지혜』(청암미디어, 1994).

_____, 『유교철학』(조선대학교 출판부, 1997).

최봉영, 『한국 교육의 본질과 오도』 (전통과 현대, 1998년 여름호).

강봉수,「인격과 덕성함양의 교육적 전통」, 『유교 도덕교육론』(원미사, 2001).

Daniel Goleman, 황태호 譯, 『감성지능 상』 (비전코리아, 1997).

Doris Maertin, Karin Boeck 공저, 홍명희 譯, 『EQ』(해냄, 1996).

오석종,「소학의 덕 교육론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신동은,「주자의 소학 교육관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최창렬,「소학의 인성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한관일,「조선전기의 소학교육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2).

황영란,「소학의 내용분석을 통한 교수 가능성 탐색」(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고분자,「소학에 나타난 효의 연구」(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민애,「소학의 현대적 의의와 초등학생 예절교육 활용방안」(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용주,「소학을 통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서울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신순남,「소학의 도덕 교육론」(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유경, 「소학의 현대 청소년 교육에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연호,「주자학의 근본배양설과 조선전기의 소학교육」(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청계사학2, 1985).

나선엽,「소학의 체제와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오미진,「소학에 나타난 도덕교육 접근방식 연구」(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도덕윤리교육	학 번	20048197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나 회 정 한문: 羅 會 貞 영문: Na Hoi-Jung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호반베르디움 301-602				
연락처	E-MAIL: skghlwjd@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소학의 도덕교육이론에 대한 고찰 영문:A Study on the theory of Moral Education in the『So-hak』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